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 영 환†, 오 미 연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전북대학교 대학원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Mi-Yeon Oh†, Young-Hwan Yee

Dept. Home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0 parents having 12-24 monthes old child in the city of Jeonju, Korea. Parenting efficacy was developed by Shin, Suk-Jae (1997) and consisting of 16 questions. The knowledge of infant-care was assessed using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 by Yoon Hyung Ju, which was modified by pedology professor and 3 graduate school students in master's or doctorate courses. In addition, by using a tool made by Gwon, Mi-Gyeong (1998) centering on the literatures on infant cue in Barnard's NCAST program, the parents' sensitivity of infant cue is investigate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s done with SPSS 10.0, an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F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re also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mother's parenting efficacy was higher than fath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by eudcational level of mothers. Second, knowledge of infant-care was higher in mothers than fathers. Areas that mothers have knowledge of infant-care in the order of the lowest areas are emotional development, sociality development, physical develop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Third, mothers reaction to infant cue is more sensitive and positive than father's. Fourth,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with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knowledge of infant-care on emotional development, and paternal parenting uneasiness has negative correlations with his sociality development and emotional development. Meanwhil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with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knowledge of infant-care on emotional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efficacy has negative correlations with her knowledge of infant-care on emotional development.

Key Word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Sensitivity

† Corresponding author, Tel: 063-270-3838, E-mail: yyh3838@chonbuk.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았을 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중요한 발달적 변화를 이룩하는 영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발달하는 능력을 통해서 영아는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 및 개념 형성이 가능해지고,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기반을 형성하는데, 특히 영아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나게 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아를 위하여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기본 신뢰 형성의 대상자로서의 역할, 다양한 자극 요인들을 제공하여 영역에서의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 촉진자로서의 역할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Berk 2002). 이처럼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육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고유의 역할이 있어 영아에게 서로 다른 발달적 영향을 준다. 결국 부모는 각각 다른 영향을 유아에게 주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영향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 효능감(박은주 2002; 박현숙 2003; 신숙재 1997), 양육지식(김은정 2004; 윤형주 2002), 민감성(권미경 1998)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먼저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 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Jahnsen, Mash 1989). 문제해결 상황과 놀이상황에서 부모의 행동과 심리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Mondell과 Tyler(1981)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등 1999). 반면, Coleman 과 Karraker(1998)는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우희정과 이숙(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런 부모의 자신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신숙재 1997).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남편의 육아협조(한유미 2003b), 가족의 건강성(안선희, 김선영 2004)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는 빠른 속도로 발달적 변화를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에 영아를 돌보는 부모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영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의 욕구가 다르며, 서로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고(Bigner 1985), 그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영아에게 적절한 경험과 환경을 더 나아가서는 발달을 북돋아 주는 자극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양육지식이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는데 영아발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부모일수록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면서 영아의 발달을 잘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적, 정서적 성숙과 어머니의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영아발달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인다(Larsen, Juhasz 1985).

한편, Ainsworth(1978)는 영아의 애착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서의 정확하고 적절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는 능력인 민감성이 효율적인 돌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achs 과 Gruen(1984)은 영아의 긍정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영아의 상태 및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줌으로써 영아가 자신에게 제공된 자극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영아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반응하도록 어머니를 돕는 것은 더욱 긍정적인 부모-영아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아의 최적의 발달을 증진하는 것이다(Lynda harrison, Roy Ann Sherrod 1991).

영아기는 전반적인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아 관련 연구들은 어머니가 대부분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과거에는 어머니를 1차 양육자로 보고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2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유연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안정보다는 정서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하고 취업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에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여와 생산적인 부모 됨을 향한 애정에서 어머니와 차이를 보인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들은 덜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적 애정 표현이 더 낮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하는 것 보다 덜 교대로 말하고, 자녀의 발음에 덜 반응하고, 자녀의 언어적 수준에 덜 조율된다. 아버지의 이러한 언어 유형은 아동으로 하여금 덜 친숙하고 덜 수용적인 포대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술의 다리 역할을 한다(Fagan, Palm 2004). 행동 통제 전략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권위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권위적이거나 허용적이다(Russell 등 1998).

최근 옥스퍼드대학교 자녀양육센터가 1958년 태어난 어린이 1만 7천명의 성장과정을 40년에 걸쳐 추적 연구한 결과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하였다(중앙일보, 2002. 3. 2). 이 연구 보고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면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부랑자가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아버지와 자녀의 강한 유대관계는 훗날 자녀의 정신질환 발생확률을 감소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Lamb(1994)은 심리학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자관계 뿐 아니라 부자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형제-부모의 관계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강혜란 2000 재인용).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된 채로 부모 됨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생산적인 느낌도 성장하게 된다. 아버지들은 어머니 보다 부모 됨에 덜 준비되어 있어 때문에 성장에 대한 아버지의 잠재력을 상기시키고, 좋은 부모가 되려는 아버지의 욕구를 지지하며, 아버지에게 부

모 역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 발달에 아버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연구가 유아대상으로 이루어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영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을 비교해 보고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영아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 및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차이가 있는가?
- 3)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4)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감성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전주시역의 12개월-24개월 영아 자녀를 둔 부모 100쌍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용으로 질문지를 나누어 전주시역 소아과와 어린이집, 놀이방을 통해서 12개월-24개월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 최종적으로 10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변인과 가정의 총수입을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 영아의 가족은 중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도구 및 절차

영아의 부모에 대한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조사는 3월에 실시하였다. 영아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몇 개의 문항을 수정한 뒤, 아동학 전공 교수께 의뢰한 결과 무리가 없다고 평가되어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4월-5월 사이에 이뤄졌다. 부모에게 배포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1) 부모 효능감

부모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Gibaud-Wallston과 Anderman(1978) 이 개발한 16문항으로 신숙재(199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유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표 1〉 영아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N=100)

변인	특성	빈도(%)	
영아	성별	남	46(46.0)
		여	54(54.0)
	연령	12-18개월	76(76.0)
		19-24개월	24(24.0)
출생순위	첫째	63(63.0)	
	둘째이하	37(37.0)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40(40.0)
		31-34세	45(45.0)
		35세 이상	15(15.0)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48(48.0)
		대졸이상	52(52.0)
직업유무	비취업	64(64.0)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12(12.0)
		31-34세	42(42.0)
		35세 이상	46(46.0)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32(32.0)
		대졸이상	68(68.0)
	직업	전문직	29(29.0)
		사무직	26(26.0)
판매서비스직		25(25.0)	
기타		20(20.0)	
가정의 총 수입	200만원 미만	21(21.0)	
	200-299만원	34(34.0)	
	300만원 이상	45(45.0)	

부모 효능감 측정 도구는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고 있는 '부모 유능감' 9문

항,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부모로서의 불안감' 4문항, 두 하위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 3문항(분석에서 제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정문으로 된 2문항이 역으로 채점되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α)는 .78, .77로, 부모 불안감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α)는 .67, .66으로 나타났다.

2) 양육지식

부모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sen과 Juhasz(1986)에 의해 고안된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를 윤형주(2002)가 변안한 것을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석박사 대학원생 3인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지식 측정 도구는 신체발달 7문항, 인지발달 7문항, 사회성 발달 6문항, 정서발달 4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의 오답 비율이 높아서 변별이 없는 문항 신체발달 2문항을 제외하고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문항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각 문항의 옳은 답은 하나이다. 각 문항에서 옳은 답으로 응답하면 1점을,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하면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대한 내적 신뢰도 계수(α)는 .80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4개영역별 내용과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부모의 영아에 대한 양육지식 하위영역의 내용

영역	내용	신뢰도	
		부	모
신체발달 (7문항)	영아의 반사, 운동능력, 수면, 영양상태, 건강상태, 배변훈련, 안전에 관한 내용	.79	.77
인지발달 (7문항)	영아의 놀이, 언어, 지각능력에 관한 내용	.75	.76
사회성발달 (6문항)	도래집단과의 관계, 규칙, 평행놀이, 협동, 정서표현능력, 공격성, 초기사회경험, 집단에 대한 일차감 등에 관한 내용.	.75	.75
정서발달 (4문항)	영아의 신뢰감, 친밀감, 독립성, 수치심 형성, 애착에 관한 내용	.77	.79

3) 민감성

Barnard의 NCAST 프로그램의 문헌 중 영아의 신호를 중심으로 권미경(1998)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영아 신호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협응 신호에 대한 내용(10문항), 비협응 신호에 대한 내용(11문항), 반사행동 및 일반적인 신호에 대한 내용(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민감성의 측정은 각 문항별로 제시된 2개의 긍정 반응(문항1, 2번), 2개의 부정 반응(문항 4, 5번), 의미를 두지 않는 반응 1항목(문항 3번),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반응 1항목(문항 6번) 중 각각의 부모가 응답한 반응의 종류(긍정적, 부정적, 무의미, 잘 모르겠다)를 파악하여 부모의 민감성의 경향성을 알아보았다.

4.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변인별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과 양육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F검증, Duncan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증, 빈도,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 효능감

부모 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 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유

무, 가정의 총 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 효능감

	부모 유능감	부모 불안감
	M(SD)	M(SD)
전문대졸이하	3.40(.51)	2.79(.75)
대졸이상	2.53(.44)	2.44(.67)
t 값	-1.32	2.40*

*p<.05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아버지	어머니	paired-t
	M(SD)	M(SD)	
부모 유능감	3.28(.50)	3.47(.48)	-2.88**
부모 불안감	2.45(.59)	2.62(.74)	-1.87

**p<.01

<표 4>에서 보듯이 부모 효능감의 paired-t 검증한 결과 부모 유능감(t=-2.88, p<.01)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부모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전체 24문항을 점수의 차이를 용이하게 알아보기 위해 백점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양육지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t를 실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어머니 연령에 따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지식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전체
	M(SD)	M(SD)	M(SD)	M(SD)	M(SD)
30세이하	73.99(15.32)	60.43(18.38)	78.63(19.47) ^a	89.10(18.84)	73.71(10.90)
31-34세	74.02(20.26)	63.31(15.21)	88.25(15.49) ^{ab}	93.75(13.34)	77.74(9.54)
35세이상	74.48(16.02)	60.20(17.87)	89.28(16.8) ^b	92.85(15.28)	77.08(9.63)
F	.004	.362	3.77*	.907	1.73

*p<.05 D=Duncan

〈표 6〉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지식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전체
	M(SD)	M(SD)	M(SD)	M(SD)	M(SD)
전문대졸이하	72.94(14.35)	58.96(16.74)	79.07(18.54)	88.29(19.40)	72.96(11.22)
대졸이상	75.07(20.17)	63.86(16.74)	89.54(15.62)	95.09(11.20)	78.75(8.26)
t	-.59	-1.44	-3.02**	-2.14*	-2.92**

*p<.05 **p<.01

〈표 7〉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영아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지식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전체
	M(SD)	M(SD)	M(SD)	M(SD)	M(SD)
전문대졸이하	71.92(16.41)	54.18(19.97)	72.41(19.55)	82.75(23.24)	68.67(13.53)
대졸이상	74.37(16.46)	59.63(17.31)	82.27(17.16)	91.66(13.47)	74.93(7.86)
t	-.66	-1.33	-2.44*	-2.31*	-2.79**

*p<.05 *p<.01

다음으로 〈표 6〉을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양육지식의 t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지식이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지식의 t 검증한 결과 〈표 7〉를 보듯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양육지식이 차이가 있었다.

〈표 8〉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지식	아버지	어머니	paired-t
	M(SD)	M(SD)	
신체발달	73.14(16.77)	74.27(17.46)	-.55
인지발달	57.57(18.21)	61.00(17.33)	-1.72
사회성발달	78.83(18.63)	84.66(17.67)	-2.66**
정서발달	88.50(17.91)	92.00(15.84)	-1.74
전체	69.84(10.17)	73.26(9.37)	-3.08**

**p<.01

〈표 8〉에서 보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paired-t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이가 있었다 (t=-3.08, p<.01). 양육지식의 평균은 69.84점, 73.26점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양육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하위영역을 paired-t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성발달(t=-2.66, p<.01)에 관한 지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

1)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

	유능감	불안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유능감	1.0					
불안감	-.482**	1.0				
신체발달	.062	.064	1.0			
인지발달	.145	-.153	.092	1.0		
사회성발달	.160	-.225*	.021	.091	1.0	
정서발달	.268**	-.313**	.030	.247*	.398**	1.0

*p<.05, **p<.01

〈표 9〉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부모 유능감은 아버지의 양육지식 중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68, p<.01). 아버지의 부모 불안감은 아버지의 양육지식 중 사회성 발달(r=-.225, p<.05)과 정서발달(r=-.313, p<.01)에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의 관계

	유능감	불안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유능감	1.0					
불안감	-.493**	1.0				
신체발달	-.151	.113	1.0			
인지발달	.065	-.147	.016	1.0		
사회성 발달	-.033	-.094	-.005	.179	1.0	
정서 발달	.323**	-.254*	-.060	.192	.610**	1.0

*p<.05, **p<.01

<표 10>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부모 유능감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중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323, p<.01$). 어머니의 부모 불안감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중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r=-.254, p<.01$).

4. 민감성

각 문항별 민감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응 신호에 대한 내용 (10문항)을 살펴보면,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아이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89(89.0)	94(94.0)
	② 젖을 먹고 싶은 것이다.	4(4.0)	4(4.0)
	③ 그냥 쳐다보는 것이다.	6(6.0)	1(41.0)
	④ 혼자 가만히 있고 싶다는 것이다.	0(0.0)	0(0.0)
	⑤ 나를 피하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0(0.0)	1(1.0)
	⑦ 기타	1(1.0)	0(0.0)
입으로 소리를 낸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놀고 싶다는 것이다.	34(34.0)	14(14.0)
	② 즐겁다는 것이다.	44(44.0)	57(57.0)
	③ 웅얼이를 하는 것이다.	21(21.0)	28(28.0)
	④ 졸리다는 것이다.	0(0.0)	0(0.0)
	⑤ 화가 난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0(0.0)	0(0.0)
	⑦ 기타	1(1.0)	1(1.0)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많이 배고프다는 것이다.	62(62.0)	50(50.0)
	② 젖이 잘 나온다는 것이다.	22(22.0)	37(37.3)
	③ 삼킬 때 나는 일상적인 소리이다.	9(9.0)	13(12.7)
	④ 놀고 싶다는 것이다.	0(0.0)	0(0.0)
	⑤ 많이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7(7.0)	0(0.0)
	⑦ 기타	0(0.0)	0(0.0)

소리 내어 웃는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놀고 싶다는 것이다.	8(8.0)	7(7.0)
	② 즐겁다는 것이다.	91(91.0)	93(93.0)
	③ 별 의미 없는 행동이다.	1(1.0)	0(0.0)
	④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0(0.0)	0(0.0)
	⑤ 울고 싶다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0(0.0)	0(0.0)
	⑦ 기타	0(0.0)	0(0.0)

내가 다가가면 손을 뺀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75(75.0)	74(74.0)
	② 나를 만지고 싶다는 것이다.	19(19.0)	25(25.0)
	③ 무의식적으로 팔을 뺐은 것이다.	2(2.0)	1(1.0)
	④ 내가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2(2.0)	0(0.0)
	⑤ 내가 싫다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0(0.0)	0(0.0)
	⑦ 기타	2(2.0)	0(0.0)

젓을 먹을 때 아기 손이 꼭 쥐어져 있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배고프다는 것이다.	28(28.0)	24(23.5)
	② 내 손을 잡고 싶다는 것이다.	22(22.0)	28(27.5)
	③ 아기들은 언제나 손을 꼭 쥐고 있는 편이다.	35(35.0)	40(40.0)
	④ 먹기 싫다는 것이다	0(0.0)	0(0.0)
	⑤ 배부르다는 것이다.	0(0.0)	1(1.0)
	⑥ 모르겠다.	12(12.0)	5(5.0)
	⑦ 기타	3(3.0)	2(2.0)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배고프다는 것이다.	2(2.0)	3(2.9)
	② 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2(2.0)	0(0.0)
	③ 소리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다.	61(61.0)	76(76.0)
	④ 예민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7(7.0)	6(6.0)
	⑤ 나와 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17(17.0)	8(8.0)
	⑥ 모르겠다.	8(8.0)	2(2.0)
	⑦ 기타	3(3.0)	5(5.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나와 눈을 맞춘다.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47(47.0)	45(45.0)
	② 나를 찾는 것이다.	25(25.0)	26(26.0)
	③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것이다.	3(3.0)	1(1.0)
	④ 내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23(23.0)	27(27.0)
	⑤ 나와 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1(1.0)	1(1.0)
	⑥ 모르겠다.	2(2.0)	0(0.0)
	⑦ 기타	0(0.0)	0(0.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미소를 짓는다.			
의 미	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37(37.0)	29(29.0)
	②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59(59.0)	69(69.0)
	③ 배냇짓이다.	4(4.0)	2(2.0)
	④ 자신을 달래는 행동이다.	0(0.0)	0(0.0)
	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0(0.0)	0(0.0)
	⑦ 기타	0(0.0)	0(0.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수유 도중 아기의 손가락이 펼친다.			
의 미	① 배가 불러 편하다는 것이다.	65(65.0)	59(59.0)
	② 장난치고 싶다는 것이다.	16(16.0)	30(30.0)
	③ 일상적인 행동이다.	8(8.0)	8(8.0)
	④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0(0.0)	0(0.0)
	⑤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1(1.0)	0(0.0)
	⑥ 모르겠다.	8(8.0)	2(2.0)
	⑦ 기타	2(2.0)	1(1.0)

비협응 신호(11문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얼굴에 표정 없이 가만히 있다.			
의 미	① 아기가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0(0.0)	1(1.0)
	② 편안하다는 것이다.	41(41.0)	20(20.0)
	③ 아기들의 일반적인 표정이다.	20(20.0)	27(27.0)
	④ 지루하다는 것이다	25(25.0)	43(43.0)
	⑤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1(1.0)	0(0.0)
	⑥ 모르겠다.	7(7.0)	0(0.0)
	⑦ 기타	6(6.0)	7(7.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하품을 한다			
의 미	① 나와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다.	0(0.0)	1(1.0)
	② 나에게 안기고 싶다는 것이다.	32(32.0)	46(46.0)
	③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12(12.0)	12(12.0)
	④ 지루하다는 것이다.	30(30.0)	19(19.0)
	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4(4.0)	1(0.0)
	⑦ 기타	22(22.0)	21(21.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젖을 빨아낸다.			
의 미	① 배부르다는 것이다.	66(66.0)	69(69.0)
	② 장난하고 싶다는 것이다.	4(4.0)	3(3.0)
	③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0(0.0)	1(1.0)
	④ 삼키지 못해서 빨아내는 것이다.	6(6.0)	4(4.0)
	⑤ 먹기 싫다는 것이다.	21(21.0)	20(20.0)
	⑥ 모르겠다.	1(1.0)	2(2.0)
	⑦ 기타	2(2.0)	1(1.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얼굴을 찡그린다.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2(2.0)	3(3.0)
	② 나에게 안기고 싶다는 것이다.	12(12.0)	24(24.0)
	③ 얼굴 근육이 움직인 것이다.	6(6.0)	3(3.0)
	④ 귀찮다는 것이다.	57(57.0)	44(44.0)
	⑤ 나와 놀기 싫다는 것이다.	12(12.0)	7(7.0)
	⑥ 모르겠다.	3(3.0)	5(5.0)
	⑦ 기타	8(8.0)	14(14.0)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내가 앉았을 때 몸을 뒤로 제킨다.			
의 미	① 나와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4(4.0)	8(8.0)
	② 나와 장난치고 싶다는 것이다.	29(29.0)	42(42.0)
	③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것이다.	32(32.0)	22(22.0)
	④ 나와 있는 것이 지루해서 이다.	2(2.0)	0(0.0)
	⑤ 내가 안는 것이 싫어서이다.	27(27.0)	24(24.0)
	⑥ 모르겠다.	1(1.0)	0(0.0)
	⑦ 기타	5(5.0)	4(4.0)

손가락을 뺀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장난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3(3.0)	4(4.0)
	②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3(4.0)	0(0.0)
	③ 아기들은 무조건 입에 넣는 습관이 있다..	31(31.0)	32(32.0)
	④ 스스로 달래는 행동이다.	20(20.0)	29(29.0)
	⑤ 배고프다는 것이다.	29(29.0)	15(15.0)
	⑥ 모르겠다	4(4.0)	6(6.0)
	⑦ 기타	10(10.0)	14(14.0)

낮은 소리로 짧게 운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내가 안아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26(26.0)	13(13.0)
	② 내가 얼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41(41.0)	58(58.0)
	③ 아기들의 일상적인 표현이다.	2(2.0)	3(3.0)
	④ 배고프다는 것이다.	12(12.0)	7(7.0)
	⑤ 아기가 짜증을 내는 것이다.	15(15.0)	12(12.0)
	⑥ 모르겠다.	2(2.0)	5(5.0)
	⑦ 기타	2(2.0)	2(2.0)

크고 길게 갑자기 운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내가 안아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22(22.0)	32(32.0)
	② 내가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9(9.0)	4(4.0)
	③ 아기들의 일상적인 표현이다.	1(1.0)	2(2.0)
	④ 잠투정하는 것이다.	21(21.0)	27(27.0)
	⑤ 많이 아프다는 것이다.	38(38.0)	29(29.0)
	⑥ 모르겠다.	3(3.0)	2(2.0)
	⑦ 기타	6(6.0)	4(4.0)

젖꼭지를 밀어낸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2(2.0)	0(0.0)
	②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70(70.0)	83(83.0)
	③ 별 의미 없는 행동이다.	0(0.0)	0(0.0)
	④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2(2.0)	1(1.0)
	⑤ 먹기 싫다는 것이다.	22(22.0)	16(16.0)
	⑥ 모르겠다.	1(1.0)	0(0.0)
	⑦ 기타	3(3.0)	0(0.0)

수유도중 발로 찬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같이 놀고 싶다는 것이다.	9(9.0)	14(14.0)
	②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64(64.0)	62(62.0)
	③ 의미 없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11(11.0)	13(13.0)
	④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7(7.0)	4(4.0)
	⑤ 내가 싫다는 것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1(1.0)	2(2.0)
	⑦ 기타	8(8.0)	6(6.0)

아기가 손을 배에 댄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내가 배를 만져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15(15.0)	18(18.0)
	②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13(13.0)	10(10.0)
	③ 무의식적으로 아기 손이 배로 가는 것이다.	30(30.0)	38(38.0)
	④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2(2.0)	1(1.0)
	⑤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7(7.0)	12(12.0)
	⑥ 모르겠다.	27(27.0)	17(17.0)
	⑦ 기타	6(6.0)	4(4.0)

반사행동 및 일반적인 신호(9문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을 꼭 편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장난치고 싶다는 것이다.	6(6.0)	1(1.0)
	② 간지럽다는 것이다.	71(71.0)	74(74.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12(12.0)	20(20.0)
	④ 몸이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1.0)	0(0.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4(4.0)	1(1.0)
	⑥ 모르겠다.	4(4.0)	1(1.0)
	⑦ 기타	2(2.0)	3(3.0)

큰소리가 들리면 팔을 활짝 펼친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장난을 치는 것이다.	7(7.0)	6(6.0)
	② 놀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71(71.0)	77(77.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5(5.0)	7(7.0)
	④ 몸이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0(0.0)	0(0.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5(5.0)	1(1.0)
	⑥ 모르겠다.	8(8.0)	7(7.0)
	⑦ 기타	4(4.0)	2(2.0)

뺨을 툭툭 치면 자극 받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11(11.0)	9(9.0)
	② 젖이 먹고 싶다는 것이다.	32(32.0)	32(32.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34(34.0)	47(47.0)
	④ 몸이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2(2.0)	3(3.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0(10.0)	5(5.0)
	⑥ 모르겠다.	5(5.0)	2(2.0)
	⑦ 기타	6(6.0)	2(2.0)

아기 손을 잡으면 꼭진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7(7.0)	10(10.0)
	② 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38(38.0)	26(26.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46(46.0)	57(57.0)
	④ 배가 고파하는 행동이다.	0(0.0)	1(1.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1.0)	2(2.0)
	⑥ 모르겠다.	5(5.0)	0(0.0)
	⑦ 기타	3(3.0)	4(4.0)

아기가 엎드려 있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즐겁게 노는 것이다.	25(25.0)	28(28.0)
	② 똑바로 누우려는 것이다.	29(29.0)	17(17.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25(25.0)	34(34.0)
	④ 아기가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8(8.0)	10(10.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0(0.0)	0(0.0)
	⑥ 모르겠다.	8(8.0)	7(7.0)
	⑦ 기타	5(5.0)	4(4.0)

밤에 자주 깬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3(3.0)	0(0.0)
	② 기분이 좋아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것이다.	3(3.0)	1(1.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밤에 자주 깬다.	9(9.0)	10(10.0)
	④ 아기가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58(58.0)	53(53.0)
	⑤ 배가 고파 짜증을 내는 것이다.	18(18.0)	28(28.0)
	⑥ 모르겠다.	3(3.0)	2(2.0)
	⑦ 기타	5(6.0)	6(6.0)

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배가 불러 편안하다는 것이다.	15(15.0)	10(10.0)
	② 잠이 온다는 것이다.	48(48.0)	43(43.0)
	③ 아기들은 대부분 그렇다.	20(20.0)	21(21.0)
	④ 귀찮다는 것이다.	2(2.0)	2(2.0)
	⑤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0(0.0)	3(3.0)
	⑥ 모르겠다.	10(10.0)	11(11.0)
	⑦ 기타	5(5.0)	10(10.0)

낮에도 잠을 안잔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나와 노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16(16.0)	19(19.0)
	② 새로운 환경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32(32.0)	46(46.0)
	③ 대부분의 아기들은 그렇다.	4(4.0)	3(3.0)
	④ 아기가 불편해서 그렇다.	15(15.0)	10(10.0)
	⑤ 아기가 예민해서 그렇다.	20(20.0)	16(16.0)
	⑥ 모르겠다.	7(7.0)	3(3.0)
	⑦ 기타	6(6.0)	3(3.0)

딸꾹질을 한다.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의 미	① 기저귀가 젖었다는 것이다.	43(43.0)	53(53.0)
	② 젖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 것이다.	26(26.0)	11(11.0)
	③ 아기들은 대부분 자주 그런다.	9(9.0)	15(15.0)
	④ 아기가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7(7.0)	5(5.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5(5.0)	1(1.0)
	⑥ 모르겠다.	5(4.0)	4(4.0)
	⑦ 기타	5(5.0)	12(12.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2-24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에 차이를 살펴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을 비교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반적인 민감성의 경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 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박은주(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이 아버지의 부모 효능감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 어머니 약 64% 정도가 전업주부로 영아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영아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자긍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지식이 높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미정(1994)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Benasich 와 Brooks-Gunn(199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형주(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지식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유능감과 영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유능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신뢰감, 독립성, 친밀감과 같은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영아의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였다. 영아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반응하도록 돕는 것은 더욱 긍정적인 부모-영아 관계와 영아의 최적의 발달을 증진시키므로 아버지가 영아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나 교육의 기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이 높았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향상 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감성을 전반적인 경향만을 알아보는데 그쳤다. 그러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병행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감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영아의 신호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야 영아발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민감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선행연구 고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민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강혜란(2000).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 (I). **대한가정학회지** 38(7): 153-165
2. 권미경(1998).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3(2): 117-126
3. 김은정(2004). 아버지의 양육생상성 및 양육지식과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박은주(2002). 부모 효능감과 아동의 역량지각 및 외로움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6. 안선희·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7. 우희정·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3-90
8. 윤형주(2002).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중앙일보. 2002. 3. 2. 자녀성적, 아버지 영향 크다.
10. 한유미(2003b).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11. Berk, L. E. (2002). *Infants and Children: Parental Through Middle Children*. MA: Allyn & Bacon.
12. Bigner, J. J. (198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2nd rd., pp. 57-136). NY: Macmillan
13. Coleman, P. K., & Karraker, H.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14. Fagan, J. & Palm, G. (2004).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Thomson Delmar Learning
15. Frodi, A. M., Lamb, M. E., Leavitt, L. A & Donovan, W. L.(1978). "Fathers' and Mothers' Responses to Infant smiles and Cr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 197
16.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17. Larsenm, J. J., & McCreary-Juhasz, A.(1985). The effects if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maturity on adolescent attitudes toward parenting. *Adolescence*, 20(80): 823-839
- 18 Lynda Harrison and Roy Ann Sherrod(1991). Effects

- of Hospital-based Instruction on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Preterm Infants, *Neonatal Network* 9(7): 27-33
- 19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20. Parke, R. D., Sawin, D. B. (1977). "Fathering: It's Major Role." *Psychology Today* 11(6): 108-112
21. Russell, A., Aloa, V., Feder, T., Glover, A., Miller, H., & Palmer, G. (1998). Sex-based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s in a sample with preschool childre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0: 1-11
22. Wachs, T. D. and Gruen, G. (1984). Environmental Stim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Zero to three* 6-10